

# METAPHYSICAL THEOLOGY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칼바르트와 과정신학

- 칼바르트
  - 자연신학 반대
- 과정신학
  - 인간과 세계의 진화적 성격을 강조
  - 신도 변화해 가는 세계와의 영적 교류를 통해 발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
  - 화이트 헤드, 기포드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증명의 시대

- ‘다섯 가지의 길들’(quinquae viae)
- 신 존재가 인간에게 즉각적 자명한 명제가 아니므로 증명이 필요하고 요청된다.
- 자명(self-evident)한 명제란
  - 술어가 이미 주어의 의미를 부분적 구성하는 내재적 관계의 명제
  - ex) 신의 본성이 → 신의 본질로부터 → 신의 존재를 결론적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방도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삼단 논법
  - 모든 x는 y다  $x=y$
  - p는 하나의 x다  $p=x$
  - 따라서, p는 하나의 y다  $p=y$
- 무엇이 신의 존재로 하여금 신의 본질 자체에 속하도록 하는 원인인가?
  - 그러나 고유한 매개어를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
- 그러나 신은 그 고유한 영향과 결과적 징후들을 드러내신다.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안셀무스(1033-1109년)
  - 술어와 주어의 연결의 근거(본질)를 수단으로 존재를 주체에 연관
  - <모놀로기움> <프로슬로기움>
  - “신은 그 이상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이다.”
  -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
- 아퀴나스(1224-1274년)
  - 결과(피조물)로부터 그것의 원인(신)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시도한다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교리적 대 전제
  - 하나님은 발생되지도 않았고 소멸되지 않는다
  - 그 자신의 활동 안에서 온전하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의 창조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 5  
(다섯 가지의 길)**

■ “운동으로 부터의 증명”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사물을 인식하며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다. 즉, 그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운동시키는 “부동(不動)의 동자(動者)”가 있을 것이다. “부동의 동자”가 바로 신이다.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순수 현실태(잠재태도 없는 상태의)에 이른 존재의 우수성

- 신은 최초의 동력인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능동인으로부터의 증명”

그 자체가 본래부터 능동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어떤 사물이 그 자체가 원인이 되려면, 자신보다 먼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본질에 있어 알려져 있는 모든 원인이란 것은 동시에 다른 원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 가능한 유한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원인들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이것으로부터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제1원인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바로 신이다.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모든 부차적 동력인은 스스로 원인성을 지니기 위해 언제나 신의 동인적 인과성에 근거를 둔다
- 부차적 원인들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증명”

관찰된 대상은 본질에 있어 우연적이다. 우연적이라 함은 대상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물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대상들의 존재는 그들이 존재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연성이 아닌 가능성이다. 이러한 계열의 존재의 가능성은 그 이외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필연적 존재가 바로 신이다.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신: 필연적 존재 (ens a se)
- 피조물: 우연적 존재 (ens ab alio)
- \* 두 종류의 존재자로 구별
- cf. 아리스토텔레스
  - 영속적인 존재: 천체들과 최초의 부동의 동자 원동자
- But, 아퀴나스
  - 영속적인 존재 ← 본질(what they are) 존재(that they are)
  - 구분되지 말고 일체 되어야.
  - 구분되면 우연적 존재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신은 그 본질로부터 존재를 부여 받은 것일 수 없다
- 존재 자체(ipsium esse)이며  
    유일한 존재이므로
- > 신은 신 자신 안에서의 존재(esse per se)
  
- > 따라서 신과 피조물 구별에는 시간적 차원이 내포
  
- \* 스스로 있는 존재(esse per se)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자연의 위계에서 관찰되는 사물의 단계에 근거하는 증명”

우리는 어떤 사물은 다른 사물 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교적인 등급은 필연적으로 판단의 규정과 일치하는 절대 기준을 시사한다. 선함, 아름다움, 완전함 등의 기준은 바로 신이다.

----- (형상적 원인)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인간이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온갖 제한된 완전성(선과 진리 등)의 원천으로 묘사
- 플라톤주의 전통에서 형상들은 신의 정신 속에 담겨  
    → 신의 완전성의 표현들
- 형상들은 모든 피조물의 근본적인 원형
- 신의 완전성은 피조물 안에 제한된 완전성의 형태로 존재  
    → 신적인 존재의 본질을 불완전하게나마 반영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에 근거하는 증명”

세계의 모든 일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에게 맞는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질서의 조화를 운명이나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한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설계자가 바로 신이다.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 만물이 잠재태로부터 현실태로 질서적으로 운동하는 변화 과정의 원천  
→ 지향하는 바의 목적인

---

---

---

---

---

---

---

---

*Metaphysical Theology*

**신 존재 증명 5 (다섯 가지의 길)**

- 제일 원인 -----> “운동으로 부터의 증명”
- 제일의 동력인 -----> “능동인으로부터의 증명”
- 존재 자체/ 그 자신 안에서의 존재(esse per se)----->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증명”
- 형상적 원인 -----> “자연의 위계에서 관찰되는 사물의 단계에 근거하는 증명”
-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인 ----->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에 근거하는 증명”

---

---

---

---

---

---

---

---